



## 작은자매형제관상선교회

우리는 기도의 우위성을 살고 가난한 이들과 삶을 나누는 형제공동체와 자매공동체로 구성된 선교공동체다. 밤낮으로 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체조배는 선교사명으로 피어나야 할 우리 관상 성소를 나타내는 표시이다.

공동체는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푸코신부의 영성을 살아가는 작은 관상수도원으로, 프라테르니타(우애공동체)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울타리는 가난한 이들이다.

우리는 프라테르니타생활이 핵심적이라고 느낀다. 왜냐하면 나자렛의 가르침에 따른 우리의 봉헌은 복음에 뿌리를 둔 우정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리고 일치는 기적들보다도 하느님을 더 말한다고 믿기 때문이다.

프라테르니타들 곁에는 깊은 기도생활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민감함에 불림을 느낀 많은 평신도들, 젊은이들, 가족들이 영적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. 그들의 영적걸음은 그들이 속한 환경 안에서 그 지역교회와 깊은 친교 안에서 평신도 성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.

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공동체는 운동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렇게 교구(1983)와 교황청(1990)의 인준을 받았다.